

●일일스터디\_표준안

윤선민 / 중앙일보 / 2026.06.01.

| 순번 |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 분야 | 비고 |
|----|---------------------------------------|----|----|
| 1  | 방산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폭발...5명 사망        | 사회 | -  |
| 2  | SK하이닉스 청주 공장서 불소 일부 누출...3,600명 대피 소동 | 사회 | -  |

(1)기사/뉴스요약

방산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폭발...5명 사망

[앵커]

우리 핵심 산업 공장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먼저, 방산 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대형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을 연상케 하는 큰 폭발에 작업자 다섯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중 한 명은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박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산 너머로 희뿌연 연기가 쉴 새 없이 솟구칩니다.

같은 시각 희고 검은 연기가 차례로 치솟는 장면이 대전 시내 곳곳에서도 목격됐습니다.

폭발의 충격으로 콘크리트 건물은 앙상한 뼈대만 남았고, 주변 구조물은 엇가락처럼 휘어졌습니다.

오늘(1일) 오전 11시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동시간대 119 신고만 30여 건이 빚발쳤습니다.

폭발이 일어난 곳은 사업장 내 56동 세척공실로, 굉음과 함께 지상 1층 짜리 건물 한 동이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소방 당국은 오전 11시 1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100여 명과 장비 30여 대를 투입해 5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오후 1시 7분 완전되면서 소방 대응 1단계는 해제됐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5명이 숨졌는데, 20대 계약직 근로자 2명과 50대와 30대 정규직 근로자 3명입니다.

자력 탈출한 2명 중 1명은 전신 화상의 증상을 입었고 다른 1명은 병원 치료 후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원인 조사에 착수했고,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핵심: 방산 업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대형 폭발이 일어나 작업자 다섯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다.**

(2)기사/뉴스요약

SK하이닉스 청주 공장서 불소 일부 누출...3,600명 대피 소동

[앵커]

우리 대표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 청주 공장에선 불이 나면서, 위험 물질인 불소가 누출됐습니다.

직원 3천6백여 명이 한때 대피했습니다.

다만, 생산 공정엔 차질이 없었다고 회사 측이 밝혔습니다.

송근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전 10시 반쯤, 공장 내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불은 10여 분 만에 잡혔지만, 화재로 불소 일부가 누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 11명이 한때 이상 증세를 호소해 사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내부에 있던 직원 3천6백 명도 방재 작업 등을 위해 대피했습니다.

불소는 무색의 자극성 유독 기체로,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 공정 중에선 질소와 섞어 오염물 제거에 쓰이는데, 가스 주입 과정에서 배관에 문제가 생겨 누출된 걸로 당국과 회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스 누출 이후 회사 측은 환경정화 장비를 가동했고, 남아있는 가스 제거 작업은 3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SK하이닉스 측은 장비 가동에는 문제가 없어 화학물질 누출로 인한 생산 공정 차질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핵심: SK하이닉스 청주 공장에 불이 나면서 위험 물질인 불소가 누출됐다. 반도체 생산 공정 중에서는 질소와 섞어 오염물 제거에 쓰이는데 가스 주입 과정에서 배관에 문제가 생겨 누출된 걸로 추정하고 있다.**

●일일키워드

| 순번 | 키워드 | 설명                                                                            | 출처      |
|----|-----|-------------------------------------------------------------------------------|---------|
| 1  | 방산  | 방위 산업을 줄여 이르는 말로 국가를 방위하는 데에 필요한 무기, 장비 등 각종 물품을 생산하고 개발하는 모든 산업을 말한다. = 군수산업 | 시사상식 사전 |
| 2  | 불소  | 할로겐 원소의 하나.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연한 누런빛을 띤 녹색 기체로, 화학적 작용이 강하여 질소 이외의 모든 원소와 화합한다.     | 시사상식 사전 |

●일일스터디\_표준안

윤선민 / 중앙일보 / 2026.06.02.

| 순번 |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 분야 | 비고 |
|----|--------------------------------------|----|----|
| 1  | “무능한 10년”, “최후의 보루”...서울시장 선거 마지막 사투 | 정치 | -  |
| 2  | ‘국중박’과 손잡은 KBS 개표방송...“최첨단 AI 활용”    | 생활 | -  |

(1)기사/뉴스요약

“무능한 10년”, “최후의 보루”...서울시장 선거 마지막 사투

[앵커]

내 지역의 미래와 내 삶을 좌우할 결정, 6.3 지방선거 본투표가 내일(3일) 치러집니다.

각 정당과 주요 지역 후보들의 마지막 총력 유세전부터 오늘(2일) 전해드립니다.

먼저,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선 무능 10년을 심판해달란 구호와 정권 견제 보루를 지켜달란 구호가 맞섰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마지막 날, 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오세훈 심판'을 외쳤습니다.

GTX 공사 현장 철근 누락 등 안전 문제 책임을 앞에 내세웠습니다.

'오세훈 시정 10년', 이젠 바꿔 달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구청장 후보들과 한자리에 앉아선, 이번 선거는 서울시장 한 명이 아닌 이재명 정부에 힘을 실는 선거라면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야당이 부족했다, 사과 먼저 했습니다.

그래도 오만한 정부·여당 견제할 마지막 보루, 서울만은 지켜 달라고 읊소했습니다.

준비 안 된 초보 운전자에게 서울을 맡길 수는 없다며 상대 후보 견제도 잊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만든 전월세난 표로 꾸짖어 달라고, 부동산 문제로 표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정 후보는 송파구 환승센터에서, 오 후보는 동대문 도매 상가 일대에서 자정까지 유권자들을 만나며 선거전을 마무리합니다.

**핵심: 6월 3일 지방선거 본투표를 앞두고 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서로 견제했다.**

## (2)기사/뉴스요약

### ‘국중박’과 손잡은 KBS 개표방송...“최첨단 AI 활용”

[앵커]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결전의 날, KBS는 내일(3일) K-컬처와 최첨단 방송 기술을 결합해 민심의 흐름을 입체적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문화의 자부심, 국립중앙박물관과 손을 잡았습니다.

KBS 개표방송, 미리 만나보시죠.

이유민 기잡니다.

[리포트]

연간 650만 명이 찾는 세계적인 문화 성지이자, K-컬처의 중심.

국립중앙박물관에 KBS 개표방송 특설무대, 'K존'이 들어섰습니다.

지역별 출토 유물은 3D 그래픽으로 살아나고, 개표 데이터는 증강현실을 타고 눈앞에 펼쳐집니다.

서울시장직을 건 한판 대국, 철옹성 대구를 놓고 펼치는 결투, 부산 복합의 진검승부까지...

최첨단 AI와 그래픽을 활용한 주요 격전지의 판세 변화가 보는 재미를 더합니다.

너비 30m, 높이 7m.

역대 최대 규모 'K월'에서는 벽과 바닥을 가득 채운 화면이 실시간 개표 상황을 시원하게 전달합니다.

KBS만의 당선자 예측 시스템, 디시전K 플러스는 이번 선거에서도 정확도 100%를 목표로 달립니다.

24년간의 노하우로, 개표 데이터를 세밀하게 분석해 당선 가능성을 더 정확하고 빠르게 가려낼 전망입니다.

KBS 개표방송, '내 삶을 바꾸는 선택'은 내일 오후 3시 50분부터 KBS 1TV와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핵심: KBS는 K-컬처와 최첨단 방송 기술을 결합해 민심의 흐름을 입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과 손을 잡았다. 지역별 출토 유물이 그래픽으로 살아나고 개표 데이터는 증강현실을 타고 눈앞에 펼쳐진다.**

## ●일일키워드

| 순번 | 키워드         | 설명                                                                       | 출처   |
|----|-------------|--------------------------------------------------------------------------|------|
| 1  | 포괄적<br>주식교환 | 모회사가 자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기 위해 자회사 주주들에게 자회사의 주식을 받는 대신, 모회사 주식 또는 현금을 주는 것. | 매일경제 |
| 2  | 카타고         | 미국 프로그래머 데이비드 우가 개발 주도한 오픈소스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2019년 2월 공개됐다.               | 매일경제 |

●일일스터디\_표준안

윤선민 / 중앙일보 / 2026.06.03.

| 순번 |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 분야 | 비고 |
|----|----------------------------------|----|----|
| 1  |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싶어 사과”              | 정치 | -  |
| 2  | 잠정 투표율 60% 넘겨...지방선거 역대 두 번째로 높아 | 경제 | -  |

(1)기사/뉴스요약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싶어 사과”

[앵커]

6.3 지방선거가 실시된 오늘(3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중앙선관위원회 사무총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선거일 투표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혼란과 심려를 끼쳐 드렸습니다."]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아주신 국민께 불편을 드리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립니다."]

["선관위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로 투표용지를 이송하였으며, 해당 투표소에서 대기 중인 유권자는 마감시각이 지나더라도 정상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치 하고 안내하였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개표가 종료 되는 즉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원인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미흡한 준비와 대처로 실망을 드리게 되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핵심: 6.3 지방선거가 실시된 오늘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중앙선관위원회 사무총장이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 (2)기사/뉴스요약

### 잠정 투표율 60% 넘겨...지방선거 역대 두 번째로 높아

[앵커]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까.

다만 60%는 넘긴 거로 집계됐는데요.

역대 지방선거 가장 높았던 제1회 지선 다음,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가봅시다.

방준원 기자, 사전투표율도 역대 지방선거 최고치였는데, 본 투표까지 합친 투표율도 4년 전보다도 높았습니까?

[리포트]

네, 이번 지방선거 잠정 최종 투표율, 아직 정확히 나오진 않았습니까.

아직 집계 중인데요.

다만 저녁 9시 기준 61%를 기록했습니다.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었던 제1회 지방선거 68.4%보다는 낮지만, 지난 2018년 60.2%보다도 높은 지방선거론 역대 두 번째 투표율입니다.

오늘(3일) 하루 매시간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율 집계에선 동시간대 역대 최고를 기록하거나 지난 선거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30일 치러진 사전투표 역시 23.5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었는데요.

이처럼, 사전투표, 본투표 모두 투표율이 높았던 건 진보·보수 진영, 여야 지지층 모두가 결집해 투표장으로 나온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일단 여야가 해석한 원인은 서로 달랐는데요.

여당은 주식시장 상승 등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가 투표율로 나타났다고 해석했고요, 반대로 야당에선 공소 취소 특검법 등에 대한 부정적 민심이 시민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핵심: 이번 6.3 지방선거는 역대 지방선거 가장 높았던 제1회 지선 다음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이다.**

## ●일일키워드

| 순번 | 키워드  | 설명                                                                                        | 출처   |
|----|------|-------------------------------------------------------------------------------------------|------|
| 1  | 캐시트랩 | 금융 계약에서 차입금 상황은 우선시하기 위해 현금흐름을 제한하는 조항을 의미한다.                                             | 매일경제 |
| 2  | 롱제비티 | 롱제비티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장수를 의미한다. 최근에는 그 의미가 확장되었는데 단순히 수명 연장을 넘어 질병 없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건강수명을 뜻한다. | 매일경제 |

●일일스터디\_표준안

윤선민 / 중앙일보 / 2026.06.04.

| 순번 |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 분야 | 비고 |
|----|----------------------------------|----|----|
| 1  | 해 뜰 때까지도 오리무중...오세훈 서울시장 '5선' 성공 | 정치 | -  |
| 2  | "송파구 투표지 50%만 인쇄"...왜 그랬나        | 정치 | -  |

(1)기사/뉴스요약

해 뜰 때까지도 오리무중...오세훈 서울시장 '5선' 성공

[앵커]

민심의 선택은 이번에도 절묘했습니다.

먼저 광역단체장 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에 지방권력을 몰아줬습니다.

부산과 충남, 강원 등 열두 곳이 푸른색이 됐습니다.

하지만, 최대승부처 서울에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역시, 민주당에 압도적 승리를 주진 않았습니

다. 민주당이 아홉 곳, 국민의힘은 네 곳을 차지했고,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

다. 네, 먼저 가장 치열했던 승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날이 밝고도 한참 지난 후에야 승자가 결정됐습니

다. 투표지 부족 사태 속에 불과 1%p 차이로 국민의힘 오세훈 당선인이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이 됐습니

[리포트]

49.15%대 48.13%, 서울시장 선거 최종 결과는 단 1.02%p 차였습니다.

526만여 명 투표에서 불과 5만 3천여 표가 승패를 가른 겁니다.

개표 초반 크게 뒤처지던 오 당선인은 막판 대역전극 끝에 오늘(4일) 아침에서야 승리를 확인했습니

다. 사상 첫 '5선 서울시장' 고지 성공은 '상식의 승리'라고 자평했습니다.

선거 내내 정부 부동산 정책을 때리고,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이른바 '닥치고 공급'을 외치면서, '한

강 벨트'의 표심에 힘입어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당선 직후에도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글로벌 3위 도시' 도약과 함께, 부동산 문제 해결을 빼놓지

않았습니

**핵심: 국민의힘 오세훈 당선인이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이 됐다.**

## (2)기사/뉴스요약

“송파구 투표지 50%만 인쇄”...왜 그랬나

[앵커]

선관위는 전체 유권자의 50%에 맞춰서 투표지를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다지만, 결과적으로 대실패였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건지, 이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가 밝힌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줄 알고, 본 투표 용지를 선거인 수의 50%만 준비했던 겁니다.

투표용지 인쇄는 구·시·군 선관위가 맡는데, 사전투표와 본 투표 준비 방식이 다릅니다.

사전투표는 현장에서 투표지를 출력하지만, 본 투표는 미리 인쇄한 용지를 사용합니다.

이 본 투표 용지, 얼마나 미리 인쇄해 둘지, 법에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선관위 내부 '지침'으로만 하한선을 정해놨는데, 통상 선거인 수의 60% 준비해오던 걸, 이번 선거를 앞두고 50%로 낮췄습니다.

송파구 선관위는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이 50%대였으니, 사전투표자 빼면 충분할 거다, 본 투표 용지를 하한선 50%에 맞춰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본 투표 당일 투표 참여가 예상을 웃돌면서, 송파구 투표율은 65.8%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투표소별로 투표 용지를 적절히 배분하는 데도 실패하면서, 일부 투표소 투표 용지가 바닥을 드러냈던 겁니다.

왜 투표용지 준비의 최소 기준을 낮췄는지, 투표율 예측은 적절했는지를 놓고 진상 규명과 문책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핵심: 이번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선관위가 밝힌 이유는 '이 정도면 충분할 줄 알고 본 투표 용지를 선거인 수의 50%만 준비했다'였다.**

### ●일일키워드

| 순번 | 키워드   | 설명                                                                                              | 출처         |
|----|-------|-------------------------------------------------------------------------------------------------|------------|
| 1  | 비례대표제 |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당선인 수를 배정하는 선거 방식으로, 소수 파에게도 그 득표비례에 따라 의석을 부여해 소수대표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 시사상식<br>사전 |
| 2  | 보궐선거  | 선거에서 당선인이 임기 개시 이후 기타 범법 행위로 인한 유죄판결로 피선거권을 상실하거나 사망, 사퇴 등의 사유로 궐석 되었을 때 실시하는 선거                | 시사상식<br>사전 |

## ●일일스터디\_표준안

윤선민 / 중앙일보 / 2026.06.05.

| 순번 |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 분야 | 비고 |
|----|----------------------------------|----|----|
| 1  | 봉쇄 35시간 만에 반출...투표함 2개 개표소로      | 사회 | -  |
| 2  | 선관위, 철수하며 개인정보 방치까지...음모론 빌미만 제공 | 사회 | -  |

### (1)기사/뉴스요약

#### 봉쇄 35시간 만에 반출...투표함 2개 개표소로

[앵커]

투표지 부족 사태 이후 사흘째 이어지던 투표소 봉쇄가 오늘(5일) 풀렸습니다.

투표소를 막고 있던 시위대를 경찰이 해산시켰습니다.

개표하지 못한 투표함 두 개가 35시간 만에 개표소로 이송됐습니다.

오늘 오전 대치와 해산 상황을 이도윤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함 이송을 위해 투입된 노란 버스와 경찰을 유튜버 등 시위대가 가로막습니다.

시위대 봉쇄로 투표함 두 개가 사흘째 고립된 상황.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 요청을 받은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해산을 명령합니다.

선거 사무 종사자를 협박, 감금하거나 선거 시설을 부수는 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고, 아파트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고지했습니다.

해산 명령에도 시위대는 출입구를 가로막고 스크럼을 짚습니다.

20분간의 대치 끝에 결국 경찰은 이들을 한 명씩 떼어 내 이동시켰습니다.

40분 만에 출입구를 확보해 선관위 관계자들과 투표소에 진입했고, 투표함 2개는 봉쇄 35시간 만에 개표소로 옮겨졌습니다.

시위대는 철수하는 경찰을 향해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시위가 지속되는 사이 잠실 투표소에선 어지럼증 등 경증 환자 7명이 발생해 소방 당국이 처치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에선 시위 참가자가 의식 불명에 빠졌다는 글이 퍼졌는데, 경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핵심: 투표지 부족 사태 이후 사흘째 이어지던 투표소 봉쇄가 오늘 풀렸다.**

## (2)기사/뉴스요약

선관위, 철수하며 개인정보 방치까지...음모론 빌미만 제공

[앵커]

그런데 선관위는 오늘(5일) 또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잠실 투표소에서 철수하면서, 유권자들 개인정보가 담긴 선거 물품을 그대로 두고 갔습니다.

이런 일들이 불신을 야기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의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투표함이 옮겨진 직후, 시위대가 아무 제지 없이 투표소로 들어갑니다.

투표소 안엔 사용하지 않은 기표 도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시위대/음성변조 :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옵니다.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부정선거의 증거물을 찾는다며 선거 물품 상자를 뒤지기도 합니다.

[시위대/음성변조 : "빨리 챙겨야 할 것 같아요. 밖에서도 자꾸 못 챙겨."]

유권자에게 대기표로 준 선거인명부 대조 전표까지 나왔습니다.

일부 유투버가 실시간 중계하며 이름과 성별 등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시위대/음성변조 : "개인 정보. 지금 기표된 용지만 가져간 겁니다."]

과거 쇼핑백과 소쿠리에 표를 담았던, 이른바 '소쿠리 사태'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어 개인정보 방치까지.

부실한 선거관리는 이번에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의 과격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선관위의 반복되는 실책이 음모론적 부정선거 주장에 빌미를 제공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핵심: 선관위가 잠실 투표소에서 철수하면서 유권자들 개인정보가 담긴 선거 물품을 그대로 두고가면서 불신을 야기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의 빌미가 되고 있다.**

### ●일일키워드

| 순번 | 키워드          | 설명                                                                                                                                                  | 출처         |
|----|--------------|-----------------------------------------------------------------------------------------------------------------------------------------------------|------------|
| 1  | 항저우 6룡       | 항저우 기반의 6대 신생 테크 기업을 지칭하는 용어다. 지난 2024년 연말 중국 테크 업계에서 '항저우 류샤오룽(육소룡)'이라는 신조어가 퍼졌고 이후 업계에 널리 알려졌다. 화제의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한 딥시크(DeepSeek)가 항저우 6룡 중 하나다. | 시사상식<br>사전 |
| 2  | 프로젝트<br>글라스윙 | 인공지능(AI) 기업 엔트로픽이 주도하고 구글·애플·마이크로소프트(MS)·아마존웹서비스(AWS)·엔비디아 등 주요 빅테크가 참여해 출범한 사이버 보안 협력 이니셔티브다.                                                      | 시사상식<br>사전 |